

3/14(월) 스가랴 묵상 23

스가랴 12:10-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스가랴 9-14장은 미래적, 묵시적 신탁을 통해 현재적 예언과 동시에 미래적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스가랴 12:1-9절을 보면 열국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갈 하나님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찌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다카르’는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할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한편, 그들이 찌른 그 이는 누구일까요? 3인칭으로 표현된 ‘그’는 바로 ‘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스가랴 11-13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그’는 바로 거절을 당하시고(스 11:4-14), 찌름을 당하시며(12:10), 칼로 침을 당하시는(13:7)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요 19:37,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 받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서 이사야 53장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러한 애통과 통곡이 스 13:1절에서 죄사함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스 13: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요한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오늘 말씀과 같은 확실한 메시아의 수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과거의 화려하고 가시적인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 보면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서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이러한 가시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예언을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 땅에 큰 애통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11절,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그 날의 큰 애통은 단지 예루살렘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각 족속에게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12-14절, “은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종말 때에 이루어질 큰 애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30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는 최후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던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이 후회를 하고 결국에는 모두 큰 애통에 휩싸이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애통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회개의 애통을 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날에 땅을 치며 후회의 애통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장차 어떤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은혜와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누리게 될 궁극적인 평화와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환난, 질병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영광의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아프리카는 테러 행위와 이 지역의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인 박해에 책임이 있는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 인해 계속 고통받고 있다. 임박한 위협에 직면한 이 지역 국가로는 베냉, 부르키나파소, 차드, 가나,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토고등이다. 2015 년 이후 3,5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2021 년에만 무려 3,500 명이 사망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의 폭력이 종식되게 하시고 특히 가장 순교에 있어 위협에 직면한 박해받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드베다니 1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캄보디아 김기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